# 검찰, 박영준이 청탁했다는 강철원 소환 통보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박영준 전 차장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

| | 의혹 | 검찰수사 | 당사자 해명 |
|---|---|---|---|
|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영향력 행사 |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2006~2007년 최창식(현 서울 중구청장) 당시 행정2부시장 집무실에서 파이시티 사업 브리핑하도록 주선 | 최 구청장 상대로 사실 여부 확인키로 하고 소환 시기 저울질 | 최 구청장, "브리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 |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 걸어 "파이시티 사업 잘돼 가느냐"고 문의 | 강 전 실장 소환 통보. 강씨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 했는지 조사 중 | 강 전 실장, 중국 체류 중으로 연락 안 됨 |
| | 이정배 전 대표에게 서울시 실무자 소개 | 서울시 직원 상대 로비 확인 중 | |
|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수수 | 2008년 서울 용산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권 매입 대금 관련해 10억원 수수 | 박 전 차장 본인과 가족계좌,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추적해 자금 흐름 규명 중 | 박 전 차장 측 해명 없음 |
| | 서울시 정무국장 시절, '위로비' 명목으로 3~4차례 걸쳐 1억여원 수수 | | |

### 파이시티 혐의 입증 주력

검찰이 박영준(55)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개입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박 전 차장으로부터 파이시티 관련 청탁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중수부 관계자는 29일 "강 전 실장에게 지난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며 "중국에 머물고 있는 강 전 실장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심 측근인 강 전 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박 전 차장에게서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 '사업 브리핑' 최창식 곧 조사
### 박 전 차장 계좌추적도 확대

검찰은 파이시티 관계자들로부터 강 전 실장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가 2006~2007년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던 최창식(60) 서울 중구청장을 찾아가 파이시티 사업 브리핑을 하도록 주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형 건축사업 인허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최 구청장도 불러 실제 파이시티 측의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과정에 박 전 차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차장과 가족 명의 계좌뿐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용산 아파트 입주권 구입' 명목으로 건넨 10억원이 제3의 인물 계좌를 통해 전달된 점 등에 주목하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박영준의 서울시 재직 시 역할 주목**=박 전 차장의 인허가 청탁 부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시에서의 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차장은 2005년 2월~2006년 5월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었다. 당시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뒤 이 의원실로 돌아갔다가 서울시 정무라인에 합류했다. 박 전 차장의 역할은 주로 국회 및 공무원 등을 상대하는 업무였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이춘식 정무부시장, 강승규 홍보기획관이 총괄했던 정무라인에서 입이 무겁고, 동선도 잡히지 않아 이 시장이 믿고 일을 맡기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박 전 차장은 이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외곽 조직(선진국민연대) 관리를 담당했고 2007년 말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초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구성에 큰 역할을 하면서 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2005~2006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간부로 있었던 인사 2명을 소환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정배 전 대표와 브로커 역할을 한 이동율(60·구속) DY랜드 건설 대표에 대한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동현·강병철** 기자 offramp@joongang.co.kr

# 파이시티 핵심엔 '대건회'

### 이정배·이동율·곽정상 모두 멤버 … 인허가 로비 역할 주목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수사 와중에 '대건회(大建會)'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일단 파이시티 전 대표인 이정배(55)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이동율(60·구속)씨가 모두 '대건회' 회원이다. 두 사람은 대건회 골프모임 등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건회는 '대우건설 관리직 OB모임'으로, 대우그룹 본사와 리비아·파키스탄 등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함께 일한 대우 선후배 400여 명의 친목 모임이다.

본지가 29일 입수한 '대건회' 명단에는 파이시티 재무 담당 상무 곽정상(54)씨도 주요 멤버로 나와 있다. 곽씨는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파이시티의 로비자금 조성 및 로비 정황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날 "나와 이정배, 이동율씨가 대건회 멤버이긴 하지만 대건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세 명 말고도 대우 출신 인사 여러 명이 파이시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메디안개발 사장 김하진(53)씨는 2003~2009년 파이시티 이사(부사장)를 지냈고 태화플래닝 사장인 김광식(53)씨는 2009~2010년 사외이사였다. 대우건설 사장 출신 한용호(74)씨는 감사를 지냈다. 파이시티 관계사인 파이랜드 전 대표 김치갑(49)씨도 대우건설 부장 출신이다.

### 대우건설 출신 선후배 모임
### 본사·관계사 요직 곳곳 포진

최근 대건회 회원들은 인터넷 '대건회' 카페 등을 통해 삼삼오오 파이시티 관련 얘기를 나누는 등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모임 소속인 한 관계자는 "대건회는 건설사 고유의 끈끈한 문화에다 중동 개발 등 해외 개척을 통해 쌓인 인연 등이 겹쳐 일반 회사 모임보다 회원 간 유대관계가 깊다"며 "회원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우그룹 특유의 인맥·네트워크 경영 문화가 이번 로비 사건과 같은 유착 비리의 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좋게 보면 네트워크 경영이지만 공무원이나 유력 인사와의 인맥을 활용하는 사업 방식이라서 나쁘게 작용하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 해경청장 이강덕 내정 서울청장 김정석 유력

### 경기청장 사의는 반려할 듯

이강덕(50)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차기 서울경찰청장에는 김정석(50)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강덕 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서천호(51) 경기경찰청장은 경기청장 임명 직후 사건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의가 반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현재 치안감인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고, 나머지 치안정감 한 자리를 놓고는 김학배 경찰교육원장, 김용판 경찰청 보안국장, 이만희 경북경찰청장이 경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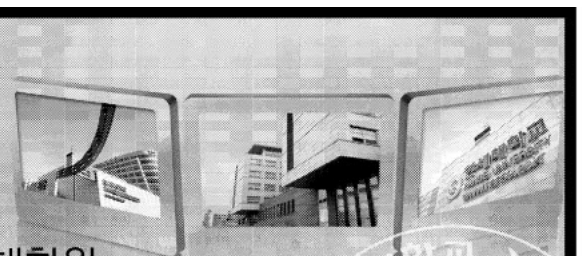
## 브리핑

### 의원 10명 "몸싸움 방지법 통과를"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여야 의원 10명이 개정안의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상천·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몸싸움 근절과 국회 선진화는 국민의 뜻"이라고 호소했다.

### 김형태, 선거법 위반 일부 시인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60·포항 남구-울릉) 당선인을 28일 재소환해 조사한 결과 김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2012학년도 후기 한세대학교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학원

| 구 분 | | 과정 | 모집인원 | 학과 (전공) |
|---|---|---|---|---|
| 일반대학원 | | 석사 | 00 | 신학, 음악, IT융합, 경찰학, 디자인, U-City IT융합 도시정책 (석 · 박사 통합과정) |
| 특수대학원 | 영산신학 | 석사 | 0 | 신학 |
| | 피아노페다고지 | 석사 | 0 | 피아노교수학 |
| | 사회복지 | 석사 | 0 |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아동청소년가족복지 |
| | 경찰법무 · 경영 | 석사 | 0 | 경찰학, 법무학, 경영학 |
| | 치료상담 | 석사 | 0 | 가족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
| 합 계 | | | 00 | |

※ 일반대학원 신학(Th.M.)은 M.Div. 취득(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취득(예정)자 지원 가능 함
※ 학과별 선발인원은 지원인원 및 성적에 의해서 결정
※ 정원 외 계약학과(U-City IT융합 도시정책) 석 · 박사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및 편입생 약간 명 모집

모집일정

| 구 분 | | 일 정 | 비 고 |
|---|---|---|---|
| 원 서 교 부 | | 2012. 4. 16(월) ~ | 홈페이지 공지 |
| 원서 접수 | 인터넷접수 | 2012. 5. 7(월) ~ 5. 30(목) 17:00 | 인터넷:www.uwayapply.com 우편은 마감일도착분에 한함 |
| | 우편 및 방문 | | |
| 입학전형(면접/실기) | | 2012. 6. 8(금) 10:00 | 일반대학원, 영산신학대학원,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
| | | 2012. 6. 9(토) 14:00 | 사회복지대학원, 경찰법무 · 경영대학원, 치료상담대학원 |
| 합격자 발표 | | 2012. 6. 19(화) 10:00 | 홈페이지 조회 ※개별통보없음 |
| 등 록 기 간 | | 2012. 7. 2(월) ~ 7. 9(월) | 가상계좌 |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 입학문의 TEL. 031-450-9893/5188 Fax. 450-5137 http://graduate.hansei.ac.kr
435-74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 대학원관 4층 대학원교학팀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교수초빙

경상남도의 거점국립대학
경상대학교는 개척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 지원기간 | 2012. 5. 21(월) ~ 2012. 5. 25(금) 09:00~17:00
|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 본교 홈페이지(www.gnu.ac.kr) 참조
| 문의 | 경상대학교 교무처 교무과(055-772-0124)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